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김 초 롱 · 곽 태 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현대패션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패션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트라이벌무드의 표현으로써 아트메이크업에 활용이 가능한 예술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트라이벌무드의 패션경향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섯 명의 패션 디자이너 도나 카란, 비비안 웨스트우드, 마리아 그라ZIA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미우치아 프라다, 준야 와타나베를 통해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를 분석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의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총 여섯 명의 디자이너들을 통해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문양, 소재, 색채, 장식 및 디테일 요소를 분석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아트메이크업에 접목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 요소는 동물 문양, 줄무늬 문양, 기하학 문양, 돌채, 소재 요소는 가죽 소재, 모피 소재, 깃털 소재, 셋째, 색채 요소는 브라운 계열 색채와 비비드 색채, 장식 및 디테일 요소는 비즈, 테슬, 자수, 다양한 소재의 액세서리, 위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고 위의 요소 중 장식 및 디테일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의 활용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트라이벌무드를 표현할 수 있었다. 문양 요소와 장식 및 디테일 요소의 자수 요소는 아트메이크업의 구도 계획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가 되었고, 소재 요소와 장식 및 디테일 요소의 다양한 원시적인 요소들은 아트메이크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처럼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방법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 분야의 창작 활동 표현 범주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예술적 양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주제어 : 아트메이크업, 트라이벌무드, 현대 패션경향, 장식 및 디테일 요소

*교신저자: 곽태기, kwaktg@sejong.ac.kr

접수일: 2016년 7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1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다국적 문화의 미의식이 글로벌화로 전파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현대사회에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패션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토대로 서구화된 근대적인 관습들 사이에서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 내며 지역주의의 공존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복식 문화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복식 양식 일부분이 서양의 미적 가치와 공존하고 있다(Choi & Ha, 2007).

다국적 문화 패션 트렌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트라이벌(tribal)무드 패션경향이 있다. 트라이벌무드는 현대패션에 반영되어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표현한다. 트라이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부족(tribe)에서 시작하여 부족의 특징과 관습이라 해석되고, 에스닉 스타일보다 원시적인 경향이 더 강하고 아프리카지역의 부족문화에서 그 기원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선보인 다양한 트라이벌무드가 결합된 패션경향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디자이너의 활성화, 혼란과 빈곤의 상징이 아닌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아프리카 문화라는 패션계의 변화된 인식, 친환경 의식을 통해 서구 패션계는 아프리카 문화와 패션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Ye, 2010).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주목받는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과 더불어, 토털 패션의 중요한 요소로써 복식의 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메이크업 분야(Kim & Choi, 2009)에서는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이 아트메이크업에 융합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라이벌무드의 기원인 아프리카 패션과 아트메이크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Choi and Ha(2007)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연구가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 미와 현대적 미 표현의 연계성 및 조형성을 밝혀냈지만 트라이벌 패션경향과 연관된 아프리카 패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 둘째, 패션과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Kim and Kim(2011)의 멕시코리듬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와 Kim and Choi(2012)의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 특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패션스타일을 통한 메이크업 연구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 개발이 없어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연구로서는 미흡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패션과 관련된 아트메이크업 작품 개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e and Tae(2012)에 따르면 패션의 디자인 콘셉트를 극대화하고, 트렌드 창출뿐 아니라 메이크업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메이크업에 관한 표현특성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로 미비하다고 한다. 뷰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아트메이크업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예술로 발전하기 위해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은 아트메이크업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도출된 자료를 통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아트메이크업을 개발하는 것에 연구목적を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발상에 있어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어 융합되는 새로

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이다. 국내외 트라이벌무드 관련 서적, 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검색자료를 통한 이론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시각적 자료들을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모티브로 활용하여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패션에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여섯 명의 디자이너들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가장 최근 패션경향이 반영되는 3년 컬렉션인 2013 F/W - 2016 S/S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그(VOGUE) 및 주요 패션관련 미디어에서 트라이벌 스타일과 관련되어 대표 디자이너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고, 2013 F/W - 2016 S/S 기간에 2회 이상 트라이벌무드와 연관된 주제로 언급되지 않은 디자이너는 제외하였다.

여섯 명의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디자이너는 아프리카 에스닉의 선구자 도나 카란(Donna Karan)이다(Menkes, 2014). 2014 S/S 모던 라이프스타일에 트라이벌한 수공예적인 느낌을 표현한 도나 카란 컬렉션(Harris, 2013),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DKNY(Harris, 2014) 패션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디자이너는 2014 S/S 케냐에서 비롯된 영감(Gonsalves, 2014), 2015 S/S 해적과 트라이벌무드가 결합한 콘셉트(Quinn, 2014), 2015 F/W 잉카의 트라이벌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Leitch, 2014)을 보여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디자이너는 2014 S/S 트라이

벌무드 패션을 보여주고(Kim, 2014), 2016 S/S 아프리카 전통을 이용한 패션을 발렌티노(Valentino)에서 선보인 마리아 그라ZIA 치우리(Maria Grazia Chiuri)와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Pier Pierpaolo Piccioli)이다(Mower, 2015).

다섯 번째 디자이너는 2014 S/S 프라다(Prada) 패션쇼에서 스트릿과 스포츠 요소에 트라이벌리즘을 결합했고(Blanks, 2013), 2016 S/S 미우미우(Miu Miu)에서 로맨틱한 트라이벌리즘을 보여줬던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이다(Flaccavento, 2015).

여섯 번째 디자이너는 2014 S/S 독창적인 'folklore(민족)'를 표현하는 트라이벌 의상을 보여주고(Furniss, 2013), 2016 S/S 원시적이고 강렬한 트라이벌 패션을 보여준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이다(Flaccavento, 2015).

둘째, 해당 디자이너들의 패션 컬렉션 이미지를 국내외 트라이벌무드 패션과 아프리카 패션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시각적 검증을 위해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보그(www.vogue.com)를 통해 총 412장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선정된 412장의 자료들을 통해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를 문양 요소, 소재 요소, 색채 요소, 장식 및 디테일 요소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아트메이크업의 디자인 발상에 활용하여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시각적 검증에 있어서 패션의 기본 요소인 실루엣 요소를 배제하는데 이는 실루엣 요소의 경우 얼굴 면적에 의상의 실루엣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색채 요소의 경우 실물자료가 아닌 온라인 이미지를 자료로 사용하여 정확한 색채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적임을 명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트라이벌무드 패션

1) 트라이벌무드 개념 및 배경

트라이벌의 사전적 어원을 살펴보면 ‘부족’에서 파생된 언어로써 ‘부족의’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다(tribal, n.d.). 패션에서 쓰이는 트라이벌 혹은 트라이벌리즘은 아프리카 무드와 관련된 단어로 개념 지을 수 있다. 트라이벌의 정확한 정의는 찾기 어려우나 패션에서 트라이벌 스타일의 기원은 아프리카이며 트라이벌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exotic(이국적인)’, ‘primitive(원시의)’, ‘ethnic(민족의)’, 또는 ‘multicultural(다문화의)’이라고 해석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반대 의미로 컬러풀, 텍스처, 오가닉 위 세 가지의 형용사로도 정의 가능한 전통 신앙적 요구가 없는 전통적 느낌의 치장이다(Friedman, 2012). 덧붙여 트라이벌 스타일은 모든 원시적인 자연 요소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것은 조가비, 견과, 박, 꽃, 목초 식물 등 야생에서 파생되는 모든 요소가 응용 가능하다(Silvester, 2009).

패션에서 나타나는 트라이벌무드는 아프리카 무드와 관련되어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자연 요소와 전통적 느낌의 치장으로 표현되는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고, 현대패션에서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은 기존의 서양화된 패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원시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기존 서양화된 이미지와 다른 아프리카 민족 같은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한다.

2) 현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여섯 명의 패션 디자이너의 최근 3년 2013 F/W - 2016 S/S 패션 컬렉션의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Table 1>의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문양 요소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느낌이 묻어나는

원시적 문양을 적극 응용하였다. 크게 세 가지로 동물 문양, 줄무늬 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동물 문양은 여섯 명의 디자이너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동물 문양은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프리카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문양으로써(Choi, 2007),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문양 요소 범주에 넣었다. 2014 S/S - 2016 S/S 패션 컬렉션에서 동물 문양은 트라이벌무드 패션에서 주로 스타일 전체에 크고 야생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며 얼룩말, 호랑이, 뱀, 표범 등의 다양한 동물 문양이 있다(Figure 1). 줄무늬 문양은 아프리카 마사이족 민족 의상의 전통 직물 디자인의 하나로서(Choi, 2005), 여섯 명의 디자이너 모두 트라이벌무드 패션 표현에 반영했다. 와타나베, 웨스트우드, 치우리와 피치올리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색채 사용을 자제한 폭이 넓고 일정한 줄무늬 문양을 사용하였다(Figure 2). 반면 카란과 프라다는 폭이 일정치 않고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한 화려한 느낌의 줄무늬 문양을 활용하였다. 기하학 문양의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카란과 웨스트우드의 경우 고대 문자나 원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무질서하고 거친 이미지의 기하학 문양을 표현하였고(Figure 3), 아프리카에서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삼각형과 같은 직선적인 기하학적 문양(Choi, 2005)은 치우리와 피치올리, 프라다, 카란이 나타내었다(Figure 4). 프라다의 경우 기하학문양을 깔끔하게 정리한 형태로 현대적인 느낌이 접목된 기하학 문양을 표현하였다. 와타나베, 웨스트우드의 경우 <Figure 5>와 같이 아프리카 전통 문양 디자인의 한 종류인 바틱(batich)을 활용하였다(Finnigan, 2015).

두 번째, <Table 2>의 소재 요소는 가죽과 모피, 깃털의 과감한 사용이 특징이다. 트라이벌무드 패션에서는 다른 패션스타일과는 다르게 가죽과 모피, 깃털의 과감한 사용을 통해 야생적이고

Table 1.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문양 요소.

요소	요소 경향				
사 레					
	<p>Figure 1. 2014 F/W 도나 카란. From FALL 2013 READY-TO-WEAR DKNY. (2013). http://www.vogue.com</p>	<p>Figure 2.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5a). http://www.vogue.com</p>	<p>Figure 3. 2015 S/S 도나 카란.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Donna Karan.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4.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Miu Miu. (2015a). http://www.vogue.com</p>	<p>Figure 5. 2016 S/S 준야 와타나베.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a). http://www.vogue.com</p>
문 양	<p>동물 문양</p> <p>- 스타일 전체에 야생적인 느낌으로 사용된 다양한 동물 패턴 (얼룩말, 호랑이, 표범 등)</p>	<p>줄무늬 문양</p> <p>- 줄무늬의 폭이 규칙적이고 색채사용이 자제된 줄무늬</p> <p>- 줄무늬의 폭이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색채 사용의 화려한 줄무늬</p>	<p>원시적인 고대문자 이미지나 그림을 통한 무질서한 이미지</p>	<p>기하학 문양</p> <p>- 다이아몬드, 삼각형과 같은 직선적인 기하학 문양</p>	<p>아프리카 전통 무늬인 바틱</p>

Table 2.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소재 요소.

요소	요소 경향		
사 레			
	<p>Figure 6. 2015 F/W 미우치아 프라다. From FALL READY-TO-WEAR Miu Miu. (2015a). http://www.vogue.com</p>	<p>Figure 7. 2015 F/W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FALL 2015 READY-TO-WEAR Valentino. (2015). http://www.vogue.com</p>	<p>Figure 8.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a). http://www.vogue.com</p>
소 재	<p>가죽</p> <p>- 동물적인 이미지 표현</p> <p>- 동물의 원시적인 이미지와 현대적인 요소의 결합 (예: 에나멜 코팅)</p>	<p>모피</p> <p>- 가공되지 않은 이미지의 모피를 두르거나 걸치는 식의 방법</p> <p>- 다양한 종류의 모피를 섞어 적극적인 야생 이미지 표현</p>	<p>깃털</p> <p>- 의상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깃털을 사용하여 드라마틱한 트라이벌무드 패션 표현</p>

원시적인 느낌을 부각한다. 소재 자체만으로도 주목성이 매우 높아 효과적으로 트라이벌무드를 연출한다.

2014 S/S - 2016 S/S 패션 컬렉션에서 가죽 요소는 동물적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원시적인 동물

이미지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프라다는 <Figure 6>과 같이 미우 미우와 프라다 패션쇼에서 악어, 타조, 뱀 등의 동물무늬 가죽에 에나멜 코팅을 하여 모던한 느낌이 결합된 트라이벌무드를 보여줬다. 모피 요소의

Table 3.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색채 요소.

요소	요소 경향		
사 례	 <p>Figure 9. 2014 F/W 비비안 웨스트우드. From FALL 2014 READY-TO-WEAR Vivienne Westwood. (2014). http://www.vogue.com</p>	 <p>Figure 10. 2016 S/S 준야 와타나베.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b). http://www.vogue.com</p>	 <p>Figure 11. 2015 F/W 미우치아 프라다. From FALL 2015 READY-TO-WEAR Miu Miu. (2015b). http://www.vogue.com</p>
색 채	<p>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색채</p> <p>비비드 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톤온톤의 여러 가지의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색채 - 가죽이나 모피 소재에서 오는 브라운 계열 색채 - 브라운이나 베이지 색채를 바탕으로 문양 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의 원시적인 강렬함이 돋보이는 비비드 색채 활용 - 트라이벌무드에 현대적인 이미지가 결합되는 비비드 색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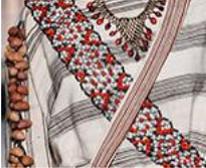
경우 <Figure 7>과 같이 커다란 모피를 걸치는 스타일과 다양한 모피의 혼합사용으로 거칠고 야생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깃털 요소는 치우리와 피치올리가 발렌티노 패션쇼에서 <Figure 8>과 같이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의상 전체 혹은 소매, 넥라인, 어깨라인에 부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깃털을 과감하면서도 섬세하게 사용하여 화려하고 신비로운 느낌의 트라이벌무드 패션을 표현했다.

세 번째, <Table 3>과 같이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색채 요소는 크게 브라운 계열 색채와 비비드 색채 활용이 많았다. 기존의 트라이벌무드 이미지와 관계되는 색채는 자연에 가까운 브라운, 올리브 계열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 2013 F/W - 2016 S/S 패션 컬렉션에서 치우리와 피치올리를 제외한 네 명의 패션쇼에서는 올리브 색채를 사용한 의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모든 디자이너가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의 색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톤온톤의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색채 사용, 가죽이나 모피 소재에서 오는 브라운 계열 색채 사용, 브라운이나 베이지 색채를 베이스로 문양 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

었다(Figure 9). 비비드 색채의 경우 의상의 원시적인 강렬함이 돋보이도록 활용되었고, 프라다, 와타나베, 카란 디자이너가 비비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와타나베의 경우 원시적인 전통문양에 다양한 비비드 색채를 활용하여 트라이벌 이미지에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더하였다(Figure 10). 카란의 경우 톤 다운된 색채 배경에 비비드한 색채의 트라이벌 문양을 넣어 문양이 화려하게 돋보이는 방식을 취했다. 덧붙여 비비드 색채가 트라이벌무드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결합되도록 사용된 의상도 있었다. 2013 F/W 프라다, 2015 F/W, 2016 S/S 미우 미우 패션쇼와 2015 S/S DKNY 패션쇼에서 비비드 색채는 문양 요소, 소재 요소, 장식 및 디테일 요소에 활용되어 현대적인 느낌인 동시에 생동감 있고 화려한 트라이벌무드를 표현하였다(Figure 11).

네 번째, 아래 <Table 4>와 같이 장식 및 디테일 요소에서는 비즈(beads), 테슬(tassel), 자수, 조가비, 돌 등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비즈, 테슬, 자수 디테일이 주를 이루었다. 비즈의 장식은 2013 F/W - 2016 S/S 시즌

Table 4.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장식 및 디테일 요소.

요소	요소 경향			
사 례	 <p>Figure 12. 2014 F/W 비비안 웨스트우드. From Sortino. (n.d.). http://www.vogue.it</p>	 <p>Figure 13. 2015 F/W 비비안 웨스트우드. From Tudor. (n.d.). http://www.vogue.it</p>	 <p>Figure 14.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b). http://www.vogue.com</p>	 <p>Figure 15.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Miu Miu. (2015b). http://www.vogue.com</p>
장식 및 디테일 요소	<p>비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이미지의 표현으로 의상에 부분적인 활용과 액세서리로서의 활용 - 디자이너의 표현 의도에 따라 소재와 표현법이 달라짐 	<p>테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슬과 비즈 요소의 결합 - 크고 과장된 테슬 디테일 요소를 통한 민속적이고 입체적인 화려함 표현 	<p>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전통 패턴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자수로 표현하여 이국적인 느낌의 극대화 	<p>다양한 소재의 액세서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적인 소재(조가비, 깃털, 돌 등)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트라이벌무드 표현 - 원시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 결합을 통한 현대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액세서리

중 와타나베를 제외한 모든 디자이너의 패션쇼에서 찾을 수 있다. <Figure 12>와 같이 현대적인 이미지와 반대되는 수공예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의 비즈 장식 디테일을 의상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액세서리에 응용하였다.

비즈의 활용은 디자이너의 표현의도에 따라 소재와 표현방법이 달라진다. 치우리와 피치올리는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한 문양에 비즈를 활용하여 의상에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프라다의 경우 트라이벌무드가 정제된 이미지의 비즈와 메탈릭한 스팅글을 함께 사용하여 트라이벌무드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적극 더하였다. 테슬 디테일의 경우 웨스트우드 패션쇼에서 화려한 디테일로 표현되었다. <Figure 13>과 같이 커다란 테슬과 비즈를 함께 사용하거나, 의상에 테슬 디테일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민속적이면서도 과감성이 나타났다. 자수 요소는 2014 S/S, 2016 S/S 발렌티노 패션쇼에서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패턴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자수로 표현한 의상이 다수 있었

다(Figure 14). 섬세하고 수공예적인 이미지의 자수 요소는 의상에 전통적인 요소들을 접목하는 동시에 이국적인 느낌을 극대화한다. 기타 조가비, 깃털, 돌 등의 자연적이고 야생적인 소재는 주로 액세서리에 활용되었다. 웨스트우드, 치우리와 피치올리의 패션쇼에서 사용된 액세서리들은 자연적 형태 그대로의 조가비와 돌을 사용하여 의상에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아울러 프라다는 <Figure 15>와 같이 깃털에 현대적인 소재인 큐빅을 더하여 트라이벌무드와 현대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액세서리를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장식 및 디테일 요소는 문양 요소, 소재 요소와 비교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소재의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트라이벌무드에 원시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모든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트라이벌무드 패션스타일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지만, 위의 트라이벌무드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라이벌한 스타일은 모든

원시적인 자연 요소와 아프리카 무드와 관련된 야생적, 원시적인 자연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자연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소재 요소와 전통적인 이미지가 표현 가능한 장식 및 디테일 요소에서 독특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현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에서 다양한 요소들로 트라이벌 디자인 콘셉트를 표현함과 동시에 비비드 색채, 신소재, 메탈릭 소재 같은 현대적인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와 원시적인 이미지가 결합하는 패션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시도는 프라다와 카란에 의해 이루어졌고 웨스트우드, 와타나베, 치우리와 피치올리는 완벽한 원시적인 트라이벌무드가 아닌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 현대 패션에 맞게 재해석한 트라이벌무드 패션을 보여주었다.

Table 5.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I.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 적용 특징 요소	작품 I
 <p>Figure 16. 2014 F/W 도나 카란. From FALL 2014 READY-TO-WEAR DKNY. (2014). http://www.vogue.com</p>	<p>문양(동물)</p> <p>의상 전체에 과감하게 활용된 얼룩말 무늬</p>	 <p>Figure 19. 작품 I 전면.</p>
 <p>Figure 17. 2015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5 COUTURE Valentino. (2015). http://www.vogue.com</p>	<p>장식 및 디테일(비즈)</p> <p>의상의 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비딩처리</p>	 <p>Figure 20. 작품 I 디테일.</p>
 <p>Figure 18. 2013 F/W 도나 카란. From FALL 2013 READY-TO-WEAR DKNY. (2013). http://www.vogue.com</p>	<p>색채(비비드 색채)</p> <p>문양의 주목성을 높이고 화려함을 주는 비비드 색채</p>	

Table 6.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II.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 적용 특징 요소	작품 II
 <p>Figure 21.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5a). http://www.vogue.com</p>	<p>문양(줄무늬), 소재(가죽) 현대적으로 표현된 서로 다른 느낌의 가죽소재를 혼합 사용하여 표현한 줄무늬</p>	 <p>Figure 24. 작품 II 전면.</p>
 <p>Figure 22. 2016 S/S 비비안 웨스트우드. From READY-TO-WEAR SPRING/SUMMER 2016 Vivienne Westwood. (2015). http://en.vogue.fr</p>	<p>장식 및 디테일 (다양한 소재의 액세서리: 돌) 액세서리에 활용된 원석 소재</p>	 <p>Figure 25. 작품 II 디테일.</p>
 <p>Figure 23. 2015 F/W 미우치아 프라다. From FALL 2015 READY-TO-WEAR Miu Miu. (2015b). http://www.vogue.com</p>	<p>색채(비비드 색채) 트라이벌한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을 상호적으로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 비비드 색채</p>	 <p>Figure 25. 작품 II 디테일.</p>

III. 트라이벌무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앞서 고찰해 본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을 응용한 트라이벌무드 총 여섯 개의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는 다음과 같다. 각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세 가지 요소 이상 아트메이크업에 활용되었으며, 현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과 같이 현대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을 시도하였다.

<Table 5>의 작품 I <Figure 19>, <Figure 20>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동물문양 중 얼룩말 문양 <Figure 16>을 자연적인 이미지와 연관되는 브라운 톤으로 얼굴에 비대칭적으로 활용한 뒤, <Figure 17>과 같은 비즈 요소로 얼룩말 문양과 입술에 입체감을 주었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비비드한 컬러인 핑크와 옐로우 색채를 더해 문양의 주목성을 높이고 화려함을 더했다.

<Table 6>의 작품 II <Figure 24>, <Figure 25>는

Table 7.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III.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 적용 특징 요소	작품 III
 <p>Figure 26. 2015 S/S 도나 카란.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Donna Karan. (2014). http://www.vogue.com</p>	<p>문양(기하학 문양) 의상 전체에 활용된 무질서하고 기하학적인 무늬</p>	 <p>Figure 29. 작품 III 전면.</p>
 <p>Figure 27.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b). http://www.vogue.com</p>	<p>장식 및 디테일 (비즈, 깃털) 의상에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를 주는 깃털 요소</p>	 <p>Figure 30. 작품 III 디테일 1.</p>
 <p>Figure 28.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5b). http://www.vogue.com</p>	<p>색채(비비드 색채) 문양에 생동감을 주는 비비드 색채</p>	 <p>Figure 31. 작품 III 디테일 2.</p>

현대적으로 줄무늬 문양 요소 <Figure 21>을 표현하기 위해 은색의 메탈릭한 가죽 소재의 라인을 이마에 사용하였다. 또한 장식 및 디테일 요소의 액세서리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자연적인 요소인 원석 <Figure 22>를 무질서한 배치로 칠키에

과감하고 입체감 있게 사용하여 트라이벌무드를 표현하였다. 아울러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상호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Figure 23>과 같이 원석의 색채 톤과 연관 있는 비비드한 그린 컬러를 원석 아래 베이스로 사용하여 원석이 돋보이

Table 8.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IV.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적용 특징요소	작품 IV
 <p>Figure 32. 2014 도나 카란. From FALL 2014 READY-TO-WEAR Donna Karan. (2014). http://www.vogue.com</p>	<p>소재(모피)</p> <p>종류가 다른 모피의 혼합사용</p>	 <p>Figure 35. 작품 IV 전면.</p>
 <p>Figure 33.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c). http://www.vogue.com</p>	<p>장식 및 디테일(테슬)</p> <p>동적인 요소를 주는 적극적인 테슬 사용</p>	 <p>Figure 36. 작품 IV 디테일.</p>
 <p>Figure 34. 2015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4). http://www.vogue.com</p>	<p>색채(비비드 색채)</p> <p>모피의 야생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해주는 선명한 비비드 색채</p>	 <p>Figure 36. 작품 IV 디테일.</p>

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아트메이크업을 하였다.

<Table 7>의 작품 III <Figure 29>, <Figure 30>, <Figure 31>은 2015 S/S 도나 카란 패션쇼 의상에 그려진 기하학 문양 <Figure 26>을 활용하여 <Figure 28>과 같이 얼굴 전체에 비비드 색채로 강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코, 입술, 턱 부분은 거칠은 색채 터치로 얼굴에 입체감과 야생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Figure 27>과 같이 깃털 요소를

응용하기 위해 깃털 이미지가 연상되는 인조 속눈썹으로 거칠고 야생적인 이미지와 대조되는 가볍고 섬세한 디테일을 더하였다.

<Table 8>의 <Figure 35>, <Figure 36>과 같이 작품 IV는 <Figure 32>, <Figure 34>를 모티브로 하여 레드 컬러를 배경으로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모피를 눈썹 부분에 과감하게 사용하여 생동감 있고 야생적인 느낌을 극대화하였다. 장식 및 디테일 요소의 테슬 <Figure 33>을 현대적이면서도 강

Table 9.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V.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적용 특징요소	작품 V
 <p>Figure 37. 2014 F/W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FALL 2014 COUTURE Valentino. (2014). http://www.vogue.com</p>	<p>소재(깃털)</p> <p>무거우면서도 섬세한 이미지의 깃털 사용</p>	 <p>Figure 40. 작품 V 전면.</p>
 <p>Figure 38. 2016 S/S 미우치아 프라다.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Miu Miu. (2015b). http://www.vogue.com</p>	<p>장식 및 디테일(비즈)</p> <p>트라이벌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액세서리</p>	 <p>Figure 41. 작품 V 디테일.</p>
 <p>Figure 39. 2015 F/W 미우치아 프라다. From FALL 2015 READY-TO-WEAR Miu Miu. (2015b). http://www.vogue.com</p>	<p>색채(비비드 색채)</p> <p>소재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비비드 색채</p>	 <p>Figure 41. 작품 V 디테일.</p>

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메탈 소재의 체인을 치크 전체에 연속적으로 붙여 얼굴선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과감한 트라이벌 무드 패션경향 요소 사용으로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Table 9>의 작품 V <Figure 40>, <Figure 41>은 아이 메이크업에 드라마틱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 <Figure 39>의 화려한 색채와 <Figure 37>의 깃털 요소를 활용하였다. 비비드한 색채가 응용된 공작새의 깃털 사용으로 우아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며, 깃털 요소의 색채인 파랑색과 검은색을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여 눈과 공작새의 이미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Figure 38>과 같이 부수적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접목하기 위해 비즈와 메탈릭한 소재의 속눈썹을 함께 사용하여 아이 메이크업에 주목성을 높이는 동시에 화려한 입체감이 표현되었다.

<Table 10>의 작품 VI <Figure 45>, <Figure 46>은 카란이 2015 S/S DKNY 패션쇼에 활용한 현대적으로 단순화한 자수 문양 <Figure 42>를 비즈와

Table 10. 2013 F/W - 2016 S/S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전개 VI.

모티브 의상 및 응용 모티브	작품적용 특징요소	작품 VI
 <p>Figure 42. 2015 S/S 도나 카란. From PRING 2015 READY-TO-WEAR DKNY. (2014). http://www.vogue.com</p>	<p>문양(기하학 문양)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제된 이미지의 문양</p>	 <p>Figure 45. 작품 VI 전면.</p>
 <p>Figure 43.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d). http://www.vogue.com</p>	<p>장식 및 디테일(자수) 규칙적인 문양의 자수요소</p>	 <p>Figure 46. 작품 VI 디테일.</p>
 <p>Figure 44. 2016 S/S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e). http://www.vogue.com</p>	<p>색채(브라운 계열) 브라운 계열과 함께 어우러지는 톤다운 된 오렌지 컬러와 올리브 컬러</p>	 <p>Figure 46. 작품 VI 디테일.</p>

함께 응용하였다. 비즈의 사용으로 자수 문양이 화려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덧붙여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거친 눈썹 표현과 <Figure 43>, <Figure 44>를 모티브로 브라운, 톤 다운된 오렌지, 올리브 컬러와 규칙적인 문양의 자수 요소를 이마에 문양 요소로써 응용 하여 원시 부족적인 트라이벌무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개발을 목적으로 현대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을 모티브로 하여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를 하였다.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카란, 웨스트우드, 치우리, 피치올리, 프라다, 와타나베 총 여섯 명의 디자이너들을 선정 후, 2013 F/W -

2016 S/S 패션쇼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트라이벌무드 패션 이미지를 선정한 뒤 문양 요소, 소재 요소, 색채 요소, 장식 및 디테일 요소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각 요소들을 아트메이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의 개발 및 아트메이크업 영역 확대를 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 F/W - 2016 S/S 패션쇼에 나타난 트라이벌무드 패션의 문양 요소는 동물 문양, 줄무늬 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나뉜다. 동물 문양은 동물의 이미지와 야생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프리카 부족에서 비롯된 줄무늬 문양, 기하학 문양을 활용하여 부족적인 트라이벌무드를 표현하였다. 소재 요소는 가죽, 모피, 깃털이 있으며 각 소재들은 의상에 섬세함, 자연적인, 원시 이미지를 더한다. 색채 요소는 기존의 트라이벌무드 패션과 관련되는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색채와, 생동감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접목할 수 있는 비비드 색채 활용이 많았다. 장식 및 디테일 요소는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로 표현된다. 비즈, 테슬, 자수를 활용한 다양한 원시적인 소재의 액세서리가 있고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르다. 트라이벌무드 패션스타일은 디자이너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지만, 공통적으로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이미지는 소재 요소와 장식 및 디테일에서 비롯된 다양한 소재의 액세서리를 통해 표현되었다. 더불어 모든 트라이벌무드 관련 요소 측면에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둘째, 위의 총 여섯 개의 작품들을 통해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패션의 경계를 넘어 아트메이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가죽, 모피, 깃털, 비즈, 테슬 같은 요소들은 의상에 흔하게 사용되지만, 아트메이크업에서는 폭넓게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를 통한 자유로운 아트메이크업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피 요

소, 비즈 요소, 깃털 요소들은 아트메이크업의 기본 요소인 텍스처 표현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문양 요소와 장식 및 디테일의 자수 요소는 아트메이크업에 조형성과 구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 III과 디자인 VI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응용되어 아트메이크업의 표현방법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동시에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아트메이크업 작품들은 트라이벌무드의 기원인 아프리카 부족 이미지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아트메이크업에 활용한 것이 아닌, 현대패션에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재해석한 트라이벌무드를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작품들이 단순히 트라이벌무드 아트메이크업이 아닌 트라이벌무드, 현대 패션경향, 아트메이크업 위 세 가지가 융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의 실루엣 요소를 배제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체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를 다루지 못한 채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 분야의 창작활동 표현범주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트라이벌무드 패션경향 요소의 실루엣 요소를 포함한 아트메이크업의 연구와 트라이벌무드 패션 이외에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예술적 양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을 연구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lanks, T. (2013, September 19). SPRING 2014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11, 2016, from

-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prada>
- Choi, H. J. (2007). The African style in fashion designs in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3), 150-164.
- Choi, H. J., & Ha, J. S. (2007). Asian · African · Latin American cultural hybrid in modern fashion (1).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9(3), 167-180.
- Choi, Y. O. (2005). The analysis of the present ethnic fashion's major characteristic.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7(5), 481-491.
- FALL 2013 READY-TO-WEAR DKNY. (2013).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dkny/slideshow/collection#19>
- FALL 2014 COUTURE Valentino.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couture/valentino/slideshow/collection#37>
- FALL 2014 READY-TO-WEAR Donna Karan.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donna-karan/slideshow/collection#21>
- FALL 2014 READY-TO-WEAR DKNY.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dkny/slideshow/collection#28>
- FALL 2014 READY-TO-WEAR Vivienne Westwood.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vivienne-westwood-red-label/slideshow/collection#19>
- FALL 2015 READY-TO-WEAR Miu Miu. (2015a).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miu-miu/slideshow/collection#22>
- FALL 2015 READY-TO-WEAR Miu Miu. (2015b).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miu-miu/slideshow/collection#21>
- FALL 2015 READY-TO-WEAR Valentino. (2015).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9>
- Finnigan, K. (2015, October 4). All in the concept at Junya Watanabe. *The Telegraph*. Retrieved December 13, 2015, from <http://www.telegraph.co.uk/fashion/paris-fashion-week/junya-watanabe-spring-summer-2016-show-report>
- Flaccavento, A. (2015, October 8). When in Paris, Choose Your Tribe. *BOF*. Retrieved November 30, 2015, from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fashion-show-review/when-in-paris-choose-your-tribe>
- Friedman, N. (2012, April 24). Fashion Tribes. *Vocabulary.com*. Retrieved December 9, 2015, from <https://www.vocabulary.com/articles/candlepwr/fashion-tribes>
- Furniss, J. A. (2013, September 28). SPRING 2014 READY-TO-WEAR Junya Watanabe. *VOGUE*. Retrieved August 1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junya-watanabe>
- Gonsalves, R. (2014, March 25). The trouble with 'tribal': African inspirations and bright colours. *INDEPENDENT*.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fashion/features/the-trouble-with-tribal-african-inspirations-and-bright-colours-9213232.html>
- Harris, S. (2013, September 9). SPRING/SUMMER 2014 READY-TO-WEAR Donna Karan. *VOGUE*.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4/ready-to-wear/donna-karan>
- Harris, S. (2014, September 7). SPRING/SUMMER 2015 READY-TO-WEAR Dkny. *VOGUE LONDON*.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5/ready-to-wear/dkny>
- Kim, M. J., & Choi, K. H. (2009). A study on art make-up applying formative features of Art Nouveau patterns.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3), 49-64.
- Kim, J. L., & Choi, H. S. (2012).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style makeup in fashion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1), 39-53.
- Kim, S. Y. (2014, February 5). 흥미로운 봄을 읽다 [Have an interesting spring]. *Singles*. Retrieved December 14, 2015, from http://www.thesingle.co.kr/common/cms_view.asp?channel=15&subChannel=44&idx=7476
- Kim, H. J., & Kim, H. K. (2011). A study on make-up designs based on maximalist characteristics: Focusing on overseas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to 2011 F/W seas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3), 99-115.
- Lee, Y. N., & Tae, D. S. (2012). A study of formative express characteristics of modern art make-up: Focusing on fashion collections since 200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3(2), 155-173.
- Leitch, L. (2014, March 1). Vivienne Westwood autumn/winter 2014. *Telegraph*.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fashion.telegraph.co.uk/news-features/TMG10670143/Vivienne-Westwood-autumnwinter-2014.html>
- Menkes, S. (2014, September 16). 수지 맨키스가 품평한 2015 S/S 뉴욕 패션 위크 2 [2015 S/S New York Fashion Week 2 by Suzy Menkes]. *VOGUE KOREA*. Retrieved November 28, 2015, from <http://www.vogue.co.kr/2014/09/16/%EC%88%98%EC%A7%80-%EB%A9%98%ED%82%A4%EC%8A%A4%EA%B0%80-%ED%92%88%ED%8F%89%ED%95%9C-2015-ss-%EB%89%B4%EC%9A%95-%ED%8C%A8%EC%85%98-%EC%9C%84%ED%81%AC-2>
- Mower, S. (2015, October 6).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VOGUE*. Retrieved August 9,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

- to-wear/valentino
- READY-TO-WEAR SPRING/SUMMER 2016 Vivienne Westwood. (2015). *VOGUE PARIS*. Retrieved December 15, 2015, from <http://en.vogue.fr/fashion-shows/defile/printemps-t-2016-paris-vivienne-westwood/15205#defile-28>
- Silvester, H. (2009). *Natural fashion tribal decoration from Africa*. London: Thames & Hudson Ltd.
- Sortino, M. (n.d.). Collections Fall Winter 2014-15 Vivienne Westwood. *VOGUE ITALIA*. Retrieved December 12, 2015, from <http://www.vogue.it/en/shows/show/collections-fall-winter-2014-15/vivienne-westwood>
- SPRING 2015 COUTURE Valentino. (2015).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couture/valentino/slideshow/collection#41>
- SPRING 2015 READY-TO-WEAR DKNY.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dkny/slideshow/collection#16>
- SPRING 2015 READY-TO-WEAR Donna Karan.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donna-karan/slideshow/collection#18>
-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4).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5a).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13>
- SPRING 2016 READY-TO-WEAR Prada. (2015b).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6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a).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29>
- SPRING 2016 READY-TO-WEAR Junya Watanabe. (2015b).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28>
- SPRING 2016 READY-TO-WEAR Miu Miu. (2015a).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miu-miu/slideshow/collection#11>
- SPRING 2016 READY-TO-WEAR Miu Miu. (2015b).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miu-miu/slideshow/collection#32>
-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a).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88>
-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b).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79>
-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c).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58>
-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d).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50>
- SPRING 2016 READY-TO-WEAR Valentino. (2015e). *VOGUE*. Retrieved December 10, 2015,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33>
- trinal. (n.d). *Naver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September 28, 2015, from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cbb71c25d429467d97cb9c46a864f16e>
- Tudor, E. (n.d.). Collections Fall Winter 2015-16 Vivienne Westwood. *VOGUE ITALIA*. Retrieved December 12, 2015, from <http://www.vogue.it/en/shows/show/collections-fall-winter-2015-16/vivienne-westwood>
- Quinn, C. (2014, September 15). London Fashion Week: Backstage at Vivienne Westwood Red Label. *VOGUE PARIS*. Retrieved August 11, 2016, from <http://en.vogue.fr/fashion/fashion-inspiration/diaporama/fwpe2015-london-fashion-week-backstage-vivienne-westwood-red-label-spring-summer-2015-lfw-15373>
- Ye, J. H. (2010, June 25). 열정적인 아프리카 패션에 홀리다 [Be absorbed in passionate African fashion]. *Fashion Insight*. Retrieved November 30, 2015, from <http://www.fi.co.kr/main/view.asp?idx=32852>

Development of Art Make-up by Using Expression Trend of Tribal Mood Fashion

Kim, Cho Rong · Kwak, Tai Gi*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Factors of Tribal mood fashion, which are underlined and have cultural varicosity in modern fashion would be able to develop as applicable art in art makeup beyond fashion a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representative six fashion designers, Donna Karan, Vivienne Westwood, Maria Garazia Chiuri, Pier Pierpaolo Piccioli, Miuccia Prada and Junya Watanabe. All these designers have presented tribal mood fashion. Through analysis of these designers, factors of expression trend of tribal mood fashion have understood and then, these factors have been applied as art makeup source. The aim of this study is analyzing six designers' expression trend of tribal mood fashion, and figuring out pattern, material, decoration and detail factors of expression trend of tribal mood fashion, then, presenting a development possibility of creative art makeup by applying these factor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pattern factors are comprised of animal pattern, strip pattern and geometric pattern. Secondly, material factors are comprised of leather, fur and feather. Lastly, decoration and detail factors are comprised of beads and tassel. Among these three elements, decoration and detail factors are able to present various tribal mood actively because of availability of using various natural materials. In addition, material factors and decoration and detail's primeval materials could be applied widely with basic elements of art makeup such as color and texture. Pattern factors and decoration and detail's embroidery factors are suitable material to composition of art makeup. Therefore expression trend of tribal mood fashion may lead to extension of art make-up's expressive method.

Key words : art make-up, tribal mood, modern fashion trend, factors of decoration and detail

